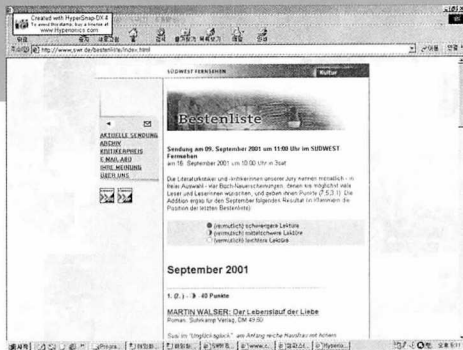


# 독일 도서시장의 흐름 보여주는 베스트셀러 목록

베스트셀러와 베스트 북의 순위 달리 집계해

이정보 | 유로 코리아 커뮤니케이션즈 유럽지사장



베스트 북 목록을 제공하는  
취트베스트 방송국의  
'베스텐리스트' 화면.

출판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베스트셀러를 내고 싶은 꿈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꿈을 실현하는 사람은 사실 몇 되지 않는다. 그 사정은 출판강국인 독일도 마찬가지다. 독일의 출판전문잡지 《부호리포트》(Buchreport)는 독일 출판 상황에 관한 다양한 통계를 내놓았다.

## 양장본과 문고판으로 나눠 집계해

《슈피겔》의 집계에 따르면, 작년에 가장 많이 팔린 소설은 <해리 포터> 시리즈를 제외하면 헤닝 만켈이란 스웨덴 작가의 추리소설인 《한여름의 살인》이고, 가장 많이 팔린 비문학 도서는 독일에서 '문학비평 교황'으로 불리는 마르셀 라이히-라니츠키의 《나의 인생》이었다. 그런데 TV 방송 프로그램 잡지인 《공》(Gong)의 통계에 따르면, 소설은 돈나 크로스의 《여교황》이, 비문학 도서 중에서는 위리스 다이어의 《사막의 꽃》이 1위를 차지했다. 어찌된 일일까?

독일과 한국의 출판환경이 다르다는 것을 염두에 뒀다. 독일은 양장본과 문고판(반양장본) 시장이 완전히 나뉘어 있다. 심지어 작가들은 양장본 출판사와 문고판 출판사 두 군데와 계약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1999년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귄터 그라스는 양장본은 슈타이틀 출판사와, 문고판은 DTV와 계약을 한다. 최근 한 독일 출판사는 한국 출판사와

계약하면서 '양장본' 출판권을 양도한다고 못을 박은 계약서를 보내온 적이 있다. 이 출판사는 한국도 독일과 마찬가지로 양장본과 문고판 시장이 분리돼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물론 담당자를 이해시키고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는 데 어려움은 없었다.

《슈피겔》과 《공》의 베스트셀러 리스트는 모두 출판전문지인 《부호리포트》가 집계한다. 이 가운데 《슈피겔》은 양장본을, 《공》은 문고판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부호리포트》는 9월부터 새로운 집계방식을 도입했다. 그동안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각 서점 판매 '순위'를 우편으로 집계하던 것을 이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 동안의 판매 '양'을 매출과 지역을 고려해 선정한 250개 서점의 컴퓨터와 연결해 전산 집계한다(하지만 지난 4개월간의 시험평가에 따르면 그 결과가 옛 방식을 사용했을 때와 거의 차이가 없다고 한다).

## 창작성 인정되는 작품만 순위에서 올라

모든 책이 이 집계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고유한 창작성이 있는 작품만이 순위에서 오른다. 그래서 사전이나 요리책, 성경, 건강이나 몸매 관리 지침서 따위는 아무리 많이 팔려도 리스트에 오르지 않는다. 이런 책을 포함한

집계를 보려면 현재로서는 아마존 사이트를 보는 수밖에 없는 것 같다.

양장본은 먼저 출간되는 대신 비싸다. 마르셀 라이히-라니츠키의 《나의 인생》(Mein Leben) DTV판 문고본은 정가가 22.49마르크에 불과하지만 DVA에서 나온 양장본은 그 두 배가 넘는 49.80마르크다. 이 책은 양장본으로 45만부, 2년이나 늦게 나온 문고판으로도 55만부 정도가 팔렸다. 그런데 양장본 비문학 도서 가운데 2000년에 가장 많이 팔린 라이히-라니츠키의 《나의 인생》은 문고판 리스트에서는 겨우 16위에 올라 있을 뿐이다.

독일에서 각 분야별로 리스트 100위 안에 든 책을 낸 출판사는 얼마 되지 않는다. 양장본 소설은 39개, 양장본 비문학 47개, 문고판 소설 16개, 문고판 비문학 18개 출판사만이 각 분야 100위까지의 책을 낸 것이다. 문고판 시장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출판사는 어디일까? DTV 혹은 흔히 로로로(rororo)라고 하는 로볼트? 실제로는 이름조차 생소한 '골드만'이다. 그렇다면 양장본 시장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출판사는? 한저 혹은 벡(C.H.Beck)이나 주르캄프? 아니다. 이 출판사들도 분명 상위에 랭크돼 있기는 하지만, 소설은 '디오게네스', 비문학은 DVA가 가장 영향력 있는 출판사다.

독일엔 또 다른 리스트가 있다. 바로 '베스텐리스트'(Bestenlist)라고 하는 베스트 북 목록이다. 독일의 취트베스트 방송국이 매달 새로이 선정하는 심사위원들이 추천한 도서 가운데 각각 4권을 선택해 7, 5, 3, 1점을 준다. 이 점수를 합해 순위를 매기는 것이다. 또 독자들을 위해 독자들이 읽기 쉬운 책, 어려운 책, 또 그 중간 책이란 식으로 난이도도 표시해준다. 이 리스트에는 우리에게 친숙한 출판사들이 주로 자리를 잡는다. 한국의 출판사들은 적어도 독일의 양서를 소개하고 있는 것만은 확실한 것 같다. 리스트는 웹(www.swr.de/bestenliste/index.html)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의 출판사들이 독일 도서시장을 알고 싶다면 《슈피겔》 리스트뿐만 아니라 《공》, 아마존 그리고 취트베스트 방송국의 '베스텐리스트'도 함께 참고할 일이다. ■